

韓國大學生의 性格 特性의 類型과 그 要因에 關한 研究

— 1972~1975년도 숑전대 입학생을 중심으로 —

趙 義 淑*

I. 序 論

1. 연구의 意義
2. 연구의 目的

II. Personality 연구의 理論的 背景

1. Personality의 定義
2. Personality 理論의 歷史的 근거
3. Personality 研究의 특징
4. 本 研究의 理論的 背景

III. 本大學生의 各種 心理檢査 分析

1. 研究期間, 對象 및 人員
2. 研究方法, 檢査道具 및 調查資料
3. 研究內容 및 解釋
4. 綜合: 自我概念檢査와 一般性格檢査와의 比較 解釋

IV. 結 論

序 論

1. 연구의 意義

靑年期의 關心의 焦點은 當面問題에 대한 適切한 적응이라 하겠다. 특히 이 時期는 生涯를 左右할 만큼 知的인 것은 물론 社會的, 情緒的, 身體的, 道德的으로 發達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때이므로 새로운 각도의 經驗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靑年다운 氣象을 기를 수 있는 活動과, 個性伸張과 獨創性과 獨立性을 발휘할 수 있는 活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 文理科大學(서울) 副敎授

다. 學窓生活에 있어서 正規 學業活動은 물론 효율적인 課外活動을 計劃的으로 경험시키게 되므로써 人格成長과 性格矯正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個別的으로 또는 集團的으로 학생을 지도하여 왔다.

具體的으로 기대되는 활동들을 지도하므로써 (1) 학생과 교수간의 이해를 두텁게 하는 일과, (2) 학생과 학생간의 친교와 협동을 체험하는 일과, (3)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일, 그리고 (4) 학생 각자의 指導性을 발휘할 수 있는 機會 제공, (5) 自身の 活動 結果에 대한 評價를 客觀的으로 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 (6) 地域社會를 위한 活動을 計劃하고 推進하여 社會 參與의 方法을 연구하는 일, (7) 각종 展示 및 學藝 發表 등을 통하여 健全한 大學生活에 대한 適應을 하는 동안에 人格 成長을 하게 되는 것이다. 大學 入學을 契機로 삼아 自身에 대한 客觀的인 評價를 하고 自我 發見과 成長의 方途를 講求하는 일은 知的 欲求를 充足시키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入學當初에 自我 概念檢査와 一般性格檢査를 실시하게 되었다.

學生 自身の 自己에 대한 概念構成이 自身の 行動에 많은 영향을 주고, 自身の 性格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理解시키므로써 한 學生이 處해 있는 生活의 場에 서 적극적으로 또는 바람직한 方向으로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1966년도부터 69년도까지의 연구(崇實大學 論文集 第二輯 참조)에 이어 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1970년도부터 75년까지의 檢査結果를 총 정리하였고 一貫된 學生指導의 資料를 얻을 뿐만 아니라 指導政策을 講求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2. 研究의 目的

教育의 對象인 學生을 理解하기 위하여 環境的 與件과 心理的 與件을 考察해 보는 方法이 科學的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Personality¹⁾를 人間 教育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자 할 때, 科學的으로 研究하지 않으면 올바른 理解와 豫測과 調整이 不可能하게 된다. 왜? 또는 어떻게 그런 行動特徵이 생겼는가? 라는 물음의 解答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事實을 바로 理解해야 된다.

흔히 理解는 科學의 기초라고도 하고 문제해결의 열쇠라고도 한다. 그리고 正確한 豫測을 하는 것은 올바른 理解를 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主觀的인 느낌을 통한 理解를 돕는데 중요한 過程으로 正確한 豫測을 할 수 있는 客觀的이고 妥當性있는 資料가 必要하게 된다.

1) 本大學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의 性格特性을 要因別로 比較 研究하여 類型을 찾아보는

1) 퍼서너리티의 개념은 趙義淑, “心理—社會環境이 性格形成과 變容에 미치는 영향”, 崇實大學 論文集(第 2輯), 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0, pp. 216—219 參照.

일은 學生指導를 위한 첫 作業이며

2) 本大學의 在學生의 自我概念檢査의 要因別 特性과 다른 心理檢査 結果와의 相關關係를 研究하며

3) 性格과 自我概念과 學業成績과의 相關性을 研究한다.

本 研究는 197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및 교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며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66년도부터 69년도까지의 學生指導資料 연구와 一聯된 研究로써 1970년도부터 75년까지의 資料를 총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文教當局과 本校當局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다.

II. Personality 연구의 理論的 背景

1. Personality의 定義

Personality의 語源의인 說明이나 概念에 대한 概觀은 이미 연구 발표한 “心理—社會環境이 性格形成과 變容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급하였다.

그 要點은 주로 머릴(Merrill)의 社會 文化的 見地에서 내린 定義와 스미스(Smith)의 欲求充足이나 社會適應을 위한 방법으로 습관화 시킨 것이라는 見解, 그리고 Linton의 基礎的 Personality 型和 身分의 Personality 型으로 분류 설명한 見解 등을 說明하였으며 또 Riesman의 他律的 性格(outer-directed personality)과 內的指示性格(inner-directed personality) 및 傳統的 志向性(traditional-direction)의 세 가지 類型으로 보는 立場 등을 說明하였다.²⁾

教育의 主機能은 그 주어진 社會的 狀況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型의 行動樣式을 젊은 世代에게 익혀주는 것이라고 主張한 Brookover의 見解³⁾를 빌리지 않더라도 教育의 機能에 있어서 人格形成이 主된 役割을 차지한다고 볼 때 personality의 概念을 여러 각도로 定義한 것을 찾아 봄에 意義가 있을 것이다. personality는 遺傳的 素質의 기초 위에 형성된 個人的 社會—文化的 所産이며, 力動的이며 統合的이고 總自我이며 自我意識인 동시에 自己認識이 된 自我라고 定義한 Bessie의 見解⁴⁾와 같이 自我(self)의 社會—文化的 기초를 人間行動의 理解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強調한 것을 들 수 있다. personality는 보통 “좋다”, “나쁘다”로 表現되고 있으나 이 낱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多樣하고, 올포트(Allport)의 分類에 의하면 약 50餘種

2) Ely, Chinoy, Soccoloy, New York: Random House, 1962 p. 339

3) Wilbur B. Brookover, A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American Book Co., 1955 p. 19

4) Leonard Broom, and Philip Selznick,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1963, p. 140에서 再引用

의 定義를 내릴 수 있을 만큼 多樣하다고 밝혔다.⁵⁾ 그 中の 몇가지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 을 들어보면,

1) 生物社會學的 定義(biosocial definition) — 다른 사람의 反應에 따라서 自身을 알게 된다는 견해이다.

2) 生物物理學的 定義(biophysical definition) — 一個人의 特性과 素質에 따라서 個人의 行動이 決定된다고 보는 立場이며 有機體의 側面과 知覺的 側面에 特有한 要素를 지니고 있다고 보 는 견해이다.

3) 總괄적 定義(omnibus definition) — 一個人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要素를 總괄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4) 有機的 定義(organizational definition) — 一個人은 有機體이며 그 구조적인 自我의 속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力動的인 統合體라고 본다.⁶⁾

5) 相互關係 作用을 강조한 統合的 定義(interactional definition) — 一個人의 內在的 힘이 環境的 條件에 따라서 適應하여 社會的 役割을 수행하는 有機體라고 본다.⁷⁾

6) 特性的 定義(trait definition) — 他人과 다른 特性에 따라서 個人의 personality가 규정된다고 본다.⁸⁾

Allport는 “Personality는 個人의 統合적인 社會的 役割方法을 결정짓는 內在的 特性의 力動的 體制이다”⁹⁾ 라고 定義하였다. Allport에 의한 personality 特質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가. 全體性 : 個人과 環境과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諸特性의 全體(內外로 表現되는 全體를 포함) 나. 統一性 : 精神—身體의 統一體(psychophysical system) 統一者는 自我인
- 다. 個別性 : 個人과 區別되는 環境에 대한 統合된 適應性을 지닌 것.
- 라. 力動性 : 靜止되지 않는 力學的 組織體(dynamic organization)
- 마. 形成性 : 生得的으로 固定된 것이 아니고 環境에 적응함으로써 再體制化(re-organize) 되어 가는 것.

現代의 問題는 人間이 人類歷史 속에서 새로운 技術科學과 國際的 緊張에 대처할 수 있는 社會構造로 改造시켜야 할 必然的 事件에 當面하게 될 때 傳統的인 制度와 役割만으로써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들을 發見하게 된다. 그 中の 가장 큰 問題가 人間 個人과의 關係속에서 일어나는 問題들일 것이다.

5) Calvin S. Hall, and Gardner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p. 8

6) Henry C. Smith,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p. 8.

7) Ibid p. 8.

8) Ibid p. 7.

9) Ibid p. 6.

사람마다 비슷한點과 다른點을 自己自身이 發見하거나 깨닫게 되어 對處할 때 個人的 行動樣式의 差異點을 나타내게 되며, 비슷한點을 발견했을 때 서로의 依存性和 協同性, 그리고 適應性을 배우게 되고, 다른 점을 깨닫게 될 때 心理的 갈등과 함께 그 긴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內的 成熟性을 促進시키게 된다. 卽 personality의 現代的 概念은 內在되어 있는 生物學的 構造와 文化—社會的인 構造 안에서 쌓여지는 經驗과의 相互關係에서 이루어진 所産이라고 보는 見解가 더욱 顯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personality 理論의 歷史的 근거

넓은 의미에 있어서 personality 理論의 一般的 役割은 過去 6, 70年間 心理發展過程 안에서 단순히 생각되어 왔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personality 理論에 영향을 끼친 근거를 찾아보면 Charcot와 Janet로부터 시작된 臨床觀察(chlinical observation)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지만, Freud, Jung, McDougall 등의 견해가 다른 어떤 要因보다 더 중요하게 포함되어서 이 理論의 本質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역할하였다.

둘째는, Gestalt 전통과 William Stern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理論에서 人間行動의 統一性(unity)을 강조하고 어떤 단편적인 연구도 이 전통적인 統一性 앞에는 빛을 볼 수 없을 만큼 최근의 學說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셋째, 一般的으로는 實驗心理學과, 特殊的인 면에 있어서는 學習理論의 영향을 들 수 있으며 理論의 本質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제적 실험연구를 통한 理論形成의 過程을 제시하게 되었다.

네째, 정신측정학적 전통(psychometric tradition)의 個人差에 대한 測定과 연구로 말미암아 끼쳐진 영향이다. 그밖의 生物學的 유전적 사회적 연구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 영향이지만 이미 發表한 論文에서 言及하였으므로 위의 네 가지 영향을 personality 理論의 주요한 資源으로 들게 되었다.¹⁰⁾

心理學은 19C末에 철학과 실험생리학(experimental physiology)을 기원으로 하여 발전되었으나 personality 理論은 醫學的 專門性和 醫術의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발전을 촉구하게 되었다. 사실 Freud나 Jung, McDougall 등은 醫學教育을 받았을 뿐 아니라 精神요법 醫師(psychotherapists)로서 理論과 實際의 구체적 연관성을 연구한 것은 다른 學說과 相異한 점이라 하겠다. 그 相異한 점을 요약하면,

첫째, 心理學 發展에 있어서 다른 役割을 해왔다는 것이다. personality 理論家들은 그 時代에 따르지 않았다. 醫學界에도 實驗科學界에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傳統的인 理論이

10) Hall, op. cit., p. 2.

나 實際에도 典型的인 方法이나 신빙할만한 연구방법까지도 배척하였으므로 personality 理論이 心理學界의 主流에 깊이 파고 들 수 없었다. 그것은 몇가지 주요한 함축성있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 편 전통적인 思考方式과 人間行爲에 대한 先入觀念에서 벗어나서 自由로운 接近方法을 모색하려는 努力에서였다.

둘째는, 方向設定에 있어서 機能的이라는 점이다. 有機體의 適應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個人의 生存狀態도 각각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身體的 적응이나 神經특징에 있어서 또 精神衛生面에 있어서나 動機에 따라 行動하는 모든 面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적응한다고 갈파하였다.

그 時代에 있어서 많은 心理學者들은 動機를 무시하거나 또는 아주 過少評價하여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personality 理論家들, 특히 Freud와 McDougall은 人間行動을 理解하는 열쇠는 動機에 있다고 깊은 관심을 表明하였다.

위에서 말한 機能과 動機에 關心을 기울이게 될 때 “人間行動의 適切한 理解는 全人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信念이 굳혀졌다.¹¹⁾ 心理學 分野에서는 分化된 科學으로 發展하여 部分的인 깊이를 거듭하므로 연관성을 맺기 어려운 反面에, personality 理論은 위의 信念을 받아들일 때, 心理學者들이 專門的으로 分化시켜서 찾아낸 事實들을 調整 또는 再構成할 것과 統合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¹²⁾

3. Personality 研究의 특징

心理學에서 볼 때 personality 理論은 傳統的 意味에 있어서 理論이 아니고, 그것은 복합적인 觀察이며 一般化作業이며 理論以前의 추측(pre-theoretical speculation)이며 가설설정이라고 하였다.

大部分의 personality 理論들은 영역이 넓고 또한 人間行動의 諸樣相들을 說明하는 데 意圖가 있었으므로 科學으로서의 personality 理論을 成立시키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보편적인 理論展開보다 特定하거나, 限定된 범위의 행동들에 대한 共通의인 法則 또는 原則들을 발견하여 體系化하는 일이라고 보았다.¹³⁾

心理學에 있어서는 많은 영역의 연구分野가 있다. 心理學 研究者는 아무도 人間行動의 모든 部分을 研究하려 들지 않는다. 어떤 이는 動物의 學習만을 연구하고, 어떤 이는 작은 集團내에 있어서의 指導的 行動만을 연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man-machine system만을 연구한다. 그러나 personality 연구의 분야에서는 위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Hall, op. cit., p. 6.

12) Ibid., p. 6.

13) Donn Byrne,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6, pp. 33-34.

性格(personality) 연구에는 복잡한 인간 행위의 배후에 두 가지의 강조점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行動은 法則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人間들의 行動은 단순하건, 복잡하건, 또는 중요하건, 그다지 중요치 않든간에 因果關係가 그 어떤 法則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行動에 대한 科學的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며 心理學의 연구의 한 部分으로 체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어떤 行動도 先驗한 事件과 一定한 法則에 따라서 관련된 結果라고 概念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하나는 “個人差를 發見하는 것”이다. 前者는 一般的인 실험심리학에서 다루고, 後者는 相關心理學(correlational psychology)의 강조점이며 性格心理學(personality psychology)의 本源이기도 하다. 後者의 경우는 生物的 또는 社會的 原因의 중요한 요인을 찾아서 個人的 集團의 多樣性 속에서의 個人差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¹⁴⁾

現代에 이르러 personality 分野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實驗的 理論과 相關的 理論의 結合을 시도하려는 경향이라고 하겠다.

心理學의 한 分派로서 個人差에는 여러가지 次元으로 나누어서 다룰 수 있다. personality의 각각 다른 次元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된다. 첫째는 personality 측정(measurement)으로 주로 各 變因이나 要因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이며, 둘째는, personality 발달(development)이며 生得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에 따라 이루어지는 個人差를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personality 構造(structure)이며 각각 다른 次元이 相互關聯되어서 personality가 構成된다는 것을 연구한다. 以上の 세 次元들을 서로 關聯시켜 연구하므로써 決定要因과 理論的 測定的 연구 등 personality가 서로 關聯되어서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構圖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personality 力動性(dynamics)을 들 수 있는데 여러 자극들이 각각의 다른 行動에 미치는 영향들의 原因을 究明하며 주로 실험적 연구 조사를 그 특징으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personality 變容(change)에 대한 연구인데 personality 形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要因들을 연구하게 된다.¹⁵⁾

4. 本研究의 理論的 背景

本研究에서는 Jung의 分析的 理論(Analytic theory)을 소개하고 personality 測定次元(measurement)에 注力하여 展開하기로 하였으며 實際的인 資料로써 本大學生의 各種 檢査 結果를 處理하여 本研究의 目的인 類型을 찾아보고자 한다.

14) Ibid., pp. 13-14.

15) Ibid., pp. 15-17.

personality 연구는 人間行動에 대한 正確한 豫測을 할 수 있는 理論 構成에 重點의 努力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科學的 知識의 適用에 있어서 일어나는 하나의 困難點은 價値判斷을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 人間은 아무도 自然環境 條件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社會的 環境에서 완전 高립을 유지할 수 없는고로 科學的 知識 획득과 함께 價値問題가 同時에 다루어져야 한다. 여러해 동안 personality 연구에 있어서는 人間行動의 理論的 背景을 이룰 수 있는 多面的인 연구를 여러 狀況 속에서 即 教育 現象이나 人間 相互 關係 作用과 家族狀況 속에서 설명하려고 광범위하게 확대시켜 왔다.¹⁶⁾

1) Carl Gustav Jung은 1875년에 瑞西에서 태어나 1961년 85歲에 瑞西 Zurich에서 逝去하였다.¹⁷⁾ Jung의 分析的 理論은 그의 많은 著作活動 속에서 발전되었고 또 광범위한 人間活動에 널리 적용되면서 現代 思想에 아주 현저한 공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Jung의 근원적이고 대담성있는 思考는 최근 科學史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고 Freud를 제외하고는 “the soul of ma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적인 면의 개척을 택한 點에 있어서 유일한 存在라고 볼 수 있다. 西歐社會, 특히 內向적이고 實存的이며 靜의이고, 명상적이며, 精神의이고도 個性的인 젊은 世代들 사이에서는 自我充實에 힘쓰고 統一性을 갈구하는 경향이 깊어져서 더욱 연구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¹⁸⁾

Jung은 “혁명”의 時代의 精神的 知性的 指導者로서 인정 받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大學生들의 독서 경향에서나 行動의인 면에서도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心理學徒들에게는 關心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¹⁹⁾ Jung은 20世紀 第一의 心理學的 理論家로 꼽히고 있으며 60年間 單一目的을 가지고 人間の personality에 대하여 넓고 깊은 면까지 파헤치는 일에 全力을 다 쏟았던 것이다.²⁰⁾

人間の 無意識的 過程에 강조점을 두는 까닭에 精神分析學的 理論과 同一視되고 있지만 Freud의 學說과는 현격하게 다른 點이 있다. 그의 人間觀의 特色은 불행한 事件과 함께 目的이 있다는 것을 결부시키는 點이다. 人間の 行動은 個性과 民族史(不幸한 사건)에 의해서 制約될 뿐만 아니라 個人의 目的과 抱負(目的論的)에 의해서도 制約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personality觀은 未來와 過去를 함께 보아야 하며 한 個人은 目的에 따라서 살지만 同時에 原因이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存在라고도 생각했다. 그의 人間發達의 目的論的 立場이 바로 Freud에게 있어서는 人間이 죽을 때까지 本能的인 主題를 가지고 끝없는 反覆을 할 따름이라는 見解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16) Ibid., p. 438.

17) Ibid., p. 79.

18) Hall, op. cit., p. 112.

19) Ibid., p. 112

20) Ibid., p. 80.

Jung의 理論이 또한 民族(racial)과 personality의 系統發生(phylogenetic)의 基礎 위에 강조를 둔 것도 다른 理論家들과 다른 점이다.

그는 個人의 personality를 民族史의 產物이고 內容이라고 보았으며 現代人은 人類의 起源을 알 수 없는 究極의 世界에서부터 쌓아올린 경험의 축적에 依해서 형태지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Personality의 基礎는 古典的이고 原始的이며 固有的이며 無意識의이면서 또 普遍的인 것이라고 보았다. 神話學(mythology), 종교(religion), 古代의 象徴과 儀式, 原始人의 慣習과 信仰, 동시에 꿈과 幻像, 신경병자의 症狀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人間의 모든 面을 파헤쳤던 것이다.²¹⁾

Jung의 personality理論 構成은 ego, 個人의 無意識性과 그 複合性, 집단적 無意識性과 그 원형性, persona, anima와 animus, 그리고 그림자(shadow)등의 相互聯關의 體制로 되어 있으며, 內向性과 外向性, 생각(thinking)과 느낌(feeling), 감각(sensing)과 直觀(intuiting)의 機能, 그리고 personality 全部의 核은 自我(self)라고 하였다.²²⁾ 간단히 설명하면,

The Ego—意識의인 마음을 말하며 意圖의인 知覺과 記憶, 思考 및 感性 등을 말한다.

個人의 無意識性—ego의 영역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며, 한 번 意識의이었던 것이 潛在的으로 無意識化된 것을 말한다.

集團의인 無意識性—이 概念은 Jung의 理論의 가장 근원적이며, 논쟁점인 것 중의 하나이다. 가장 強力하고 영향있는 精神體制이며 病理學의 事例에 있어서는 ego와 個人의 無意識性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공통적인 無意識은 大部分이 archetype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感性的의 要素를 지닌 普遍的인 思考型態를 말한다.

The persona—人間의 社會的인 役割을 수행하기 위한 假面을 말하며 전통과 社會的인 慣習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反應이라고 한다.

The anima와 animus—人間은 本來 兩性의 動物이며 雌雄同體이다. 男女 性혼몬이 兩性에 다 있으며 女性의인 personality를 소유한 男性을 anima라 하고, 男性의인 personality를 소유한 女性을 animus라고 한다.

The shadow—人間 本質의 動物의 側面을 말하며 原罪, 악마적, 또는 원수 등의 感性的인 要素를 말한다.

The Self—Jung에게 있어서 Self는 精神(영혼) 또는 全人的인 personality와 同等하게 보았다. 全體의 心理의 概念은 self인 것이다. 그러므로 personality의 核心이 self이며 모든 다른 體制들이 星座와 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하여 統一과 均衡과 안정을 이루고 서로 依存性을 유

21) Ibid., p. 81.

22) Ibid., p. 82.

지하고 있다.

自我概念은 Jung의 가장 중요한 心理的 發見이며 archetype(원형)의 集中的 연구의 最高絶頂이기도 하다.²³⁾

2) Personality 측정 (personality measurement)

科學의 어느 分野에 있어서든지 必須條件이 되는 것은 信賴性和 妥當性を 가진 測定道具로써 필요한 資料를 얻는 것이다. 특히 人間의 行動 特性을 測定하는데 있어서는 personality 理論 形成과 測定技術이 成熟한 水準에 있어야하며 더우기 經驗科學으로서의 教育의 對象인 學生의 personality를 측정하는데는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우선 理論과 實際의 關聯性을 찾기 위하여

가) 測定의 內容을 設定하고

나) 一貫性(internal consistency)을 찾기 위하여 相關度 測定을 하게 된다. 특히 personality 측정은 다른 어떤 測定보다도 相關도가 낮은 것이 보통이다.²⁴⁾

知能 檢査의 要因間 相關도는 .90이며 표준 학력 檢査의 相關도는 .80이나, personality 檢査의 相關도는 .80보다 훨씬 낮다.

다) 信賴性은 同一한 檢査道具를 같은 集團에 時間的으로 다르게 使用하여 얻은 두 자료의 結果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상관성이 낮아진다.²⁵⁾ 一貫性은 一回의 일 수 있으나 信賴性은 그럴 수 없다.

라) 妥當性은 知能檢査 結果에서는 學業活動에 대한 豫測을 할 수 있으나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으면 妥當性도 없게 된다.²⁶⁾

마). 相關度—各 要因間에는 相關性이 없고 各各 獨立的이라고 본다.²⁷⁾

Ⅲ. 本 大學生의 各種 心理檢査 分析

1. 研究期間, 對象 및 人員

1) 期間—本 研究는 1975년 1월부터 1년동안 集中的으로 總整理하고 比較 研究한 것이다. 그러나 先行 研究의 계속적 연구이므로 70년도부터 75년까지 계속 학생지도와 아울러 연구해 오던 것을 비교 종합한 것이다.

2) 對象—1972년도 입학자로부터 1975년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先行 研究 資料

23) Ibid., pp.82—88.

24) Smith, op. cit., p.48.

25) Ibid., p.51.

26) Smith, op. cit., p.53.

27) Ibid., p.54.

가 1966년도에서 1969년까지 종합된 것이므로 1970년도 資料부터 취급하는 것이 一貫性 있는 研究가 되므로 1970년도부터 1975년까지 전학생을 對象으로 하였고, 檢査紙의 種目에 따라서 人員이 달라지게 된 것은 自發的 志願者에게 個人別로 相談의 資料로서 수집된 것이기 때문이다.

3) 人員(檢査 種目에 따라서 다름)

가. 自我概念檢査.....1,457명

表 1 자아개념 수검자 통계

대학별 성별 연도별	문 리 대			법 경 대			공 대			총 계			재적생 수 계	비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72	—	—	95	—	—	85	—	—	216	—	—	396	440	90.0
1973	—	—	93	—	—	88	—	—	231	—	—	412	443	93.6
1974	—	—	58	—	—	79	—	—	169	—	—	306	482	58.1
1975	—	—	71	—	—	46	—	—	226	—	—	343	510	67.3
계	—	—	317	—	—	298	—	—	842	—	—	1,457	1,875	77.7

※ 공대는 전자계산학과 포함.

1972년도의 수는 標本集團으로 선정된 학생 67명이 加算된 것이며 1972년도와 73년도는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케 한 것이므로 회수율이 높다. 그러나 1973년도와 1974년도는 입학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의원을 통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여 학생처에 제출케 하였다. 특히 標本集團으로서는 1972년도 입학생 중 自我概念檢査를 受檢한 학생 116명에게 우송 배부하여 회수한 바 67명(57.7%)의 회답자를 얻었다.

나. 一般性格檢査.....1,664명

表 2 일반 성격검사 수검자 통계

대학별 성별 연도별	문 리 대			법 경 대			공 대			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70	46	37	83	76	1	77	99	16	115	221	54	275
1971	38	40	78	71	0	71	126	20	146	235	60	295
1972	23	6	29	0	0	0	0	0	0	23	6	29
1973	29	42	71	0	1	1	0	18	18	29	61	90
1974	81	25	109	89	1	90	192	2	194	362	28	390
1975	55	46	101	105	4	109	355	20	375	515	70	585
계	—	—	468	—	—	348	—	—	848	—	—	1,664

1970년도와 71년도는 입학생 전원에게 실시하여 회수한 결과이지만 1972년도에는 문리대 교직과목 희망자만 실시하였고, 1973년도에는 교직과목 수강자와 여학생 희망자에게 실시하였다. 1974년도와 75년도에는 신입생 전원에게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므로 연인원수로 표

시되었다.

2. 研究方法, 檢査道具 및 調查資料

1) 研究進行 日程에 따라서 集團檢査와 個別檢査, 또 相談要請者에게 수시로 檢査를 실시 하였으며 文獻研究와 아울러 個別相談에 임하였다. 成績調查는 敎務處의 協助를 얻었으며 檢査결과 처리의 一部(검사지 채점처리)는 전자계산연구소의 協助를 얻었다.

2) 檢査道具는 다음과 같다.

- 가. 自我概念檢査 : 정원식,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8. Korean Testing Center
 나. 一般性格檢査 : 김기석, 고려대학교, 1965. K.T.C 발행
 다. 其他 檢査의 結果 處理는 本研究에서 제외하였다.

3) 檢査道具 解説 要約

가. 自我概念檢査 內容

- (1) 身體的 自我點數 (A) :
- (1) 道德的 自我點數 (B) :
- (3) 性格的 自我點數 (C) :
- (4) 家庭的 自我點數 (D) :
- (5) 社會的 自我點數 (E) :
- (6) 自我同一性 點數 (I) :
- (7) 自我受容 點數 (II) :
- (8) 自我行動 點數 (III) :
- (9) 總自我肯定 點數 (P 또는 TP) :
- (10) 總自我變散性 點數 (TV) :
- (11) 外的 變散 點數 (RV) :
- (12) 內的 變散 點數 (CV) :
- (13) 自我 評價 點數 (S.C) :
- (14) 分布點數 (d) :

○ 身體的 自我點數에서 높은 사람은 自己의 身體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이며 낮으면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道德的 自我에 있어서 높은 사람은 道德的 基準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으면 倫理的 기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性格的 自我 點數에서 높으면 안정되고 바람직한 性格特徵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自己 自身の 性格이 不安定하고 不安한 心理狀態에 있다고 볼수 있다.

○ 家庭的 自我 點數가 높으면 自己家庭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不和나 갈등이 해소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일단 가족에 대한 불만족, 불화,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 社會的 自我 點數가 높을 경우는 對人關係에서 원만한 社會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낮은 사람은 소외되어 있거나 不幸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總自我 肯定 點數는 自我概念檢査를 代表하는 가장 중요한 점수이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自己 自身에 대하여 肯定的이고 自己를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自信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무가치하게 느끼며, 종종 不安을 느끼며, 침울해 있으며, 不幸스럽게 느낀다. 따라서 自己 自身에 대해서 確信을 갖지 못하며, 行動도 不安定하며, 소극적이 된다. 만일 自己評價點數(S.C)가 상당히 낮으면 반하여 총점이 높게 나오면 그 검사는 의심스러운 것이며, 아마도 피검자의 방어적인 心理作用 때문에 검사의 반응이 외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 自我評價 點數가 높으면 自己批判을 할 수 있는 正常的이며 健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나, 99%의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면 자기방어가 결핍되어 自己 陳述 內容의 극단성을 의심할 수 있다. 너무 낮은 점수를 받으면 방어적인 특성 때문에 전체 점수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判定할 수 있다.²⁸⁾

○ 其他 要因들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기로 한다.

나. 一般性格檢査 內容

(1) A要因—支配性(Ascendancy)

이 점수가 높으면 對人關係에 있어서 自信을 가지고 自己主張을 하며, 集團生活에 적극적이며, 獨立的 決定 및 行動을 할 수 있다. 낮은 경우는 소극적이며 방관적이며 自身에 대하여 自信이 없다.

(2) R要因—責任性(Responsibility)

R점이 높은 사람은 責任性이 강하고 맡은 일에 인내성을 가지고 완수하며 意志가 강하다. 낮은 점수는 흥미없는 일에 곧 싫증을 느끼며 극단의 경우에는 無責任하거나 責任回避를 하게 된다.

(3) E要因—情緒的 安定性(Emotional Stability)

安定되고 균형이 잡힌 감정을 유지하고 比較的 근심이 없고 신경질이 아닌 사람은 높고, 낮은 사람은 불안하거나 心理的 緊張狀態에 있으며 감정의 동요가 심하다. 극히 낮은 점은 「노이로제」 症을 표시할 때가 많다.

(4) S要因—社交性(Sociability)

28) 정원식, 自我概念檢査要綱, 서울: K.T.C. 1968, pp. 3-4.

높은 사람은 一般的으로 社交的이므로 對人關係가 원만하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社交的 접촉을 제한하고 親知가 적고 극단일 경우에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회피한다.

(5) T점—總點(Total Score)

自信感 또는 劣等感을 表示하며 피검자 자신이 自身の 性格을 좋다고 선택하면 T 점이 높고 反對인 경우는 自身이 過少評價하는 관계로 劣等感의 정도를 나타낸다.²⁹⁾

3. 研究內容 및 解釋

1) 自我概念檢査

가) 標本集團—信賴性 調査를 위하여 1972년도 입학자로서 本檢査를 受檢한 學生 317명 中 現 4학년에 在學하는 116명을 선정하여 同一한 檢査紙를 受檢하고 회수한 결과 응답자 67명 (57.7%)과 8명의 무기명 회답자를 얻었다. 67명중 1명은 記入에 미비점이 있어서 요인별 비교에서는 제외된 項目이 있다.

(1) 要因別 比較

ㄱ. 自我概念檢査 各 요인의 相關係數

表 5 자아 개념검사 각요인의 상관계수(72연도와 75연도)

요 인	상 관 계 수	해 석
A—신 체 적 자 아	.32	상관이 있기는 하나 낮다
B—도 덕 적 자 아	.50	확실히 상관이 있다
C—성 격 적 자 아	.43	〃
D—가 정 적 자 아	.44	〃
E—사 회 적 자 아	.44	〃
TP—총 자 아 긍 정	.52	〃
SC—自 己 評 價	.34	상관이 있기는 하나 낮다

※ 相關係數의 해석

係數는 -1에서 +1 사이에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보통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로 하고 정확을 요할 때는 3자리까지 나타낸다.

.20 이하 거의 상관이 없다.

.20~ .40.....상관이 있기는 하나 낮다.

.40~ .70.....확실히 상관이 있다.

.70~ .90.....상관이 높다.

.90~1.00.....극히 상관이 높다.

表 5에 의하면 같은 要因을 1972년도와 75년도로 比較했을 때 身體的 自我(A要因)와 自己

29) 김기석, 一般性格檢査要綱, 서울: K.T.C. 1965, pp.3-4.

評價(S.C.)만이 낮을뿐 다른 요인들은 확실히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本檢査의 信賴性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다.

(2) 變化 狀況 比較

ㄱ. TP와 각 요인별 상관관계

각 요인 별로 72년도의 점수와 75년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表 6과 같은 결과를 얻어 變化 狀況을 볼 수 있었다.

表 6 TP와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 비교(72년도와 75년도 비교)

TP와 다른 요인	요인별		A			B			C			D			E		
	연도별		1972	1975	계	72	75	계	72	75	계	72	75	계	72	75	계
H H			26 (40)	25 (38)	(64)	27 (40)	38 (58)	(78)	35 (53)	36 (55)	(79)	25 (38)	32 (48)	(81)	29 (44)	34 (52)	(76)
L L			16 (24)	17 (26)		17 (26)	13 (20)		26 (40)	16 (24)		27 (41)	22 (33)		24 (36)	16 (24)	
H L			11 (17)	19 (29)		10 (15)	6 (9)		2 (3)	8 (12)		12 (18)	12 (19)		8 (12)	10 (15)	
L H			13 (19)	5 (7)		12 (19)	9 (13)		3 (4)	6 (9)		2 (3)	0 (0)		5 (8)	6 (9)	
계			66	66													

※ () 안은 비율을 표시함

表 6에서 표시한 H(High)는 T尺度로 50점 이상을 높다고 말하고, L(Low)은 49점 이하를 낮다고 표시하였다.

各 要因別 T 尺度 50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C32점 TP.....305점 A.....65점 B.....65점
 C.....60점 D.....65점 E.....58점

- ① HH는 총자아긍정 점수가 높으면서 다른 요인도 높을 경우를 말하며
- ② LL은 두 요인이 모두 낮은 표시며
- ③ HL은 총자아긍정 점수가 높지만 다른 요인은 낮은 경우이며
- ④ LH는 총자아긍정 점수가 낮으나 다른 요인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두 요인이 모두 높거나 낮을 때에는 相關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요인이 각각 다른 경우는 一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1972년도와 75년도를 비교하여 變化 狀況을 보면

⑤ A 요인은 HH 또는 LL로 一致한 학생이 72년도와 75년도에도 64%이다. 身體的自我는 入學當時나 卒業學年에도 별로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個人差는 인정할 수 있다.

⑥ B요인(道德的自我)은 66%에서 75%로 약 10%의 變化率을 보여준다. 入學時에는 H-40, L-26을 합하여 66%였으나 卒業時에는 H-58, L-20으로서 道德的 水準이 向上되었음을 나타

낸다.

⑦ C요인(性格的自我)은 H-53%, L-40%에 一致한 학생이 93%로서 入學當時에는 自我把握의 極端的인 表現을 하였으나, 卒業學年에 이르러서는 H-55. L-24%로서 劣等感을 갖는 학생보다 自信感을 갖는 학생이 많아졌다. 75년도에는 一致하는 학생수가 79%로서 14% 감소된 것으로 보면 비교적 極端性에서 벗어나서 客觀的이고 自己批判的인 圓滿한 性格形成이 되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⑧ D요인(家庭的自我)에 있어서는 79%에서 81%로 向上된 概念을 표시하였다. 72년도의 41%의 낮은 비율보다 75년도에는 33%의 낮은 비율의 학생수가 감소된 것과 H-38%에서 48%로 10% 증가한 것으로 보면 가정적 自我도 安定된 狀態를 찾아볼 수 있다.

⑨ E요인(社會的自我)는 入學時보다 自信感 있는 학생이 44%에서 52%로 증가하였고 劣等感을 가진 학생은 36%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對人關係에서 圓滿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3) 總自我肯定(TP)점수와 成績과의 相關性

ㄱ 72년도 TP와 72년도 1학년 성적의 相關係數는 .07이고

ㄴ 72년도 TP와 4년간(72-75) 종합성적의 相關係數는 .04이며

ㄷ 75년도 TP와 75년도 4학년 성적의 相關係數는 .12로서 모두 성적과는 거의 相關이 없음을 표시한다.

(4) 自己評價(S.C) 점수와 成績과의 相關性

ㄱ 72년 SC와 1학년 성적과의 相關係數는 -.12이며

ㄴ 72년 SC와 4학년 성적과의 相關係數는 .008로서 거의 相關이 없음을 나타냈다.

(5) 性格的自我(C)와 성적과의 相關性——72년도 C요인과 1학년 성적과의 相關係數는 .018로서 역시 相關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自我概念檢査의 標本集團의 연구를 綜合해 보면 檢査紙 自體의 信賴性은 확실히 있으며, 總自我肯定點數와 다른 要因들과의 相關性도 있다. 각 요인별로 向上된 變化를 보여 주었다고 判定을 내릴 수 있으나 成績과는 거의 相關성이 없으며 間或 個別 學生에게는 있는듯하나 앞으로 個別 연구는 더 해 봐야 알 수 있겠다.

나. 全體集團

表 7에 의하여 比較하면 1972년도보다

(1) 總自我肯定 點數에 높아진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begin{pmatrix} 72 \rightarrow 73 \rightarrow 74 \rightarrow 75 \text{년도} \\ 58 \rightarrow 61 \rightarrow 64 \rightarrow 60 \end{pmatrix}$ 75년도를 제외하고 上昇하였다. 총괄적으로 보면 72년도보다 6%의 증가율을 볼 수 있다.

(2) A요인—身體的 自我에서는 標本集團에서와 마찬가지로 全體 集團에서도 별로 많은 變化를 찾아볼 수 없다.

表 7 자아개념 검사 요인별 비교(1972-75)

요인 T점 연도	SC		TP		A		B		C		D		E	
	H	L	H	L	H	L	H	L	H	L	H	L	H	L
72	45	55	58	42	59	41	52	48	55	45	38	62	48	52
73	53	74	61	39	61	39	44	56	61	39	40	60	55	45
74	49	51	64	36	59	41	53	47	58	42	43	57	52	48
75	52	48	60	40	57	43	49	51	54	46	37	63	52	48
평균	50	50	61	39	59	41	49	51	57	43	39	61	52	48

※ 모든 숫자는 (%) 비율로 표시된 것임

(3) B요인—道德的自我에 있어서는 標本集團에서는 向上되었으나 72년도에 비하면 해마다 道德의 水準이 낮은 학생의 수가 증가됨과 함께 높은 학생의 수는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낮은 편이 50%를 넘는다.

(4) C要因—性格的自我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고 安定된 성격의 학생이 약간 상승하는 편이나 不安定한 학생의 수도 많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73년도를 제외하고는 매해 비슷한 비율의 학생이 있다. 安定된 학생이 평균 14% 많은 편이다.

(5) D要因—家庭的自我는 標本集團과는 正反對로 家庭의 問題를 안고 있는 학생이 低學年에서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家庭的自我가 높은 학생이 平均 39%인데 比하여 61%의 학생은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不和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家庭에서 獨立하려는 心理的 發達過程이라고도 볼 수 있다.

(6) E要因—社會的自我는 72년도 학생을 제외하고는 매해 마다 社會的 對人關係에서 성숙해진 학생이 많은 편이나 H—52%보다 약간 적은 48%의 학생이 對人關係에서 圓滿하지 못한 학생수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一般性格檢査

一般性格檢査는 要因別로 百分位尺度가 等分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94~100 대단히 높다
- 70~ 93 높다
- 32~ 69 보통이다
- 8~ 31 알다
- 0~ 7 대단히 알다

이상과 같이 각 요인별로 五等分 되어 있으나 比較의 편의를 위하여 三等分하고 70점 이상을 높다, 69~32까지를 보통, 31 이하를 알다로 표시하였다.

統計를 또한 三集團으로 나누어서 1970~72년 統計를 第一集團으로 하고, 1973~75년 統計

를 第二集團으로 하였으며, 比較를 위하여 第三集團은 1966~69년 合計를 참고하였다.

가) 第一集團(1970~72)

表 8-1 일반성격검사 각요인별 통계 I (1970~72)

성 별	요인별 대학별 백분위점수	A			R			E			S			T		
		문· 법	공 계	(%)	문· 법	공 계		문· 법	공 계		문· 법	공 계		문· 법	공 계	
남 자	70 점 이 상	129	97	226(47)	88	99	187(39)	78	82	160(33)	112	111	223(46)	101	107	208(43)
	보 통	58	78	136(28)	77	66	143(30)	90	84	174(37)	67	58	125(26)	77	65	142(30)
	31 점 이 하	67	50	117(25)	89	60	149(31)	86	59	145(30)	75	56	131(28)	76	53	129(27)
	계	254	225	479(100)												
여 자	70 점 이 상	39	9	48(40)	28	13	41(34)	25	14	39(33)	40	13	53(44)	36	14	50(42)
	보 통	19	13	32(27)	31	13	44(37)	28	12	40(33)	24	11	35(29)	23	10	33(27)
	31 점 이 하	26	14	40(33)	25	10	35(29)	31	10	41(34)	20	12	32(27)	25	12	37(31)
	계	84	36	120(100)												

※ () 안은 비율을 표시함

表 8-1에 나타난 類型으로 보면

(1) 支配性이 47% 社會性이 46%로서 약 50%에 가까운 남학생이 指導性이 높으며 對人關係에 있어서나 創意的 活動에 있어서 自信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女學生의 경우는 支配性 40% 社會性이 44%로서 약간 수가 적으며 支配性이 낮은 남학생의 25%에 비할 때 33%나 되는 것은 女性의 전통적인 特性을 나타낸 것 같다.

(3) 責任性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39%가 높고, 여학생은 34%가 높다. 三分의 一이 넘는 학생이 自己 責任에 慎重하며 자기 맡은 일에 誠實하다. 그러나 三分의 一에 가까운 학생이 낮은 편인 것도 주목할만한 문제이다

(4) 情緒의 安定感에 있어서는 男女學生 모두가 大略 三分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나. 第二集團(1973~74)

第二集團의 要因을 분석하여 볼 때,

(1) 남학생의 경우 제-집단보다 支配性이 높은 학생이 47%에서 46%로 감소되고 社會性은 46%에서 43%로 감소된 것은 실험대학 以前 入學生보다 實驗大學 入學生이 支配性에 있어서나 社會性에 있어서 약간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점수가 낮은 학생수는 支配性이 25%에서 26%로, 社會性은 28%에서 26%가 되었다.

(2) 여학생의 경우는 支配性이 40%에서 45%로 증가하였으나. 社會性은 44%에서 42%로 감소되었다 第一集團의 女學生보다 훨씬 開放的이고 指導性을 가진 學生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男學生의 比率에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3) 責任性에 있어서도 남학생의 경우는 39%에서 30%로 감소 되었고 낮은 점수의 학생이

表 8-2 일반 성격검사 각 요인별 통계 II (1973~1975)

성 별	요인별 대학별 백분위점수	A			R			E			S			T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남 자	70 점 이 상	186	230	416(46)	112	159	271(30)	117	184	301(33)	159	229	388(43)	160	219	379(42)
	보 통	97	158	255(28)	119	209	328(36)	152	227	379(42)	110	170	280(31)	100	161	261(29)
	31 점 이 하	76	159	235(26)	128	179	307(34)	90	136	226(25)	90	148	238(26)	99	167	266(29)
	계	359	547	906(100)												
여 자	70 점 이 상	52	16	68(45)	42	16	58(38)	37	11	48(32)	51	13	64(42)	46	15	61(40)
	보 통	27	8	35(23)	51	10	61(40)	53	16	69(45)	32	14	46(30)	40	11	51(34)
	31 점 이 하	40	9	49(32)	26	7	33(22)	29	6	35(23)	36	6	42(28)	33	7	40(26)
	계	119	33	152(100)												

※ () 안은 비율을 표시함

31%에서 34%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第一集團보다 實驗大學 入學生이 興味없는 일에는 關心을 표시하지 않는 학생 즉 自制心을 가지고 誠實하게 慎重性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利己의인 학생이 三分之一 정도가 된다.

(4) 女學生의 경우는 男學生과 달리 34%에서 38%로 증가되었고 앞은 점수의 학생수가 29%에서 22%로 감소된 것은 責任感있고 自己 말은 일에 誠實하게 遂行하는 學生이 많아졌다고 본다.

다) 第三集團(1966-69)

第三集團은 이미 發表된 論文에서 引用하여 比較를 위한 자료로 제구성하였으므로 表 8-3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8-3 일반 성격검사 각 요인별 통계 III (1966~69)

대학별 요인별 백분위점수	A			R			E			S			T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문· 법	공 계	계
70 점 이 상	79	41	120(43)	57	30	87(30)	60	31	91(31)	60	22	92(32)	66	35	101(35)
보 통	51	27	78(25)	71	38	109(38)	64	34	100(34)	58	28	86	56	29	85
31 점 이 하	60	32	92(32)	61	32	93(32)	68	35	103(36)	77	40	117(40)	68	36	104(36)
계	190	100	290												

※ () 안은 비율을 표시함

(1) 支配性에 있어서 43%, 社會性에 있어서 32%로 支配性은 있으나 社會性이 10%나 적은 수로 보아 自己主張에는 強하나 對人關係에서 圓滿하지 못한 학생이 三分之一 정도로 볼 수 있다. 特히 社會性이 낮은 학생수가 40%로 보아 더욱 分明해진다.

(2) 責任性에 있어서는 낮은 학생수가 32%로서 높은 학생 30%보다 더 많다.

第三集團의 統計는 男女別 區分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正確하게 比較할 수는 없다.

라) 三集團의 요인별 비교

一般性格檢査에 있어서 세 가지 集團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 支配性

		第一集團(70~72)	第二集團(73~75)	第三集團(66~69)
남 자	높 다	47%	46%	43%
	알 다	25	26	
여 자	높 다	40	45	32
	알 다	33	32	

(2) 社會性

남 자	높 다	46	43	32
	알 다	28	26	
여 자	높 다	44	42	40
	알 다	27	28	

(3) 責任性

남 자	높 다	39	30	34
	알 다	31	34	
여 자	높 다	34	38	29
	알 다	29	22	

(4) 情緒的 安定性

남 자	높 다	33	33	31
	알 다	30	25	
여 자	높 다	33	32	36
	알 다	34	23	

情緒的 安定性에 있어서는 男女學生 모두 계속적으로 安定性을 유지해 왔고 특히 알은 학생의 비율이 36%→30→25(男子) 36%→34%→23%(女子)로 감소되었다.

(5) T 點을 비교해 보면

남 자	높 다	43%	42%	35%
	알 다	27	29	
여 자	높 다	42	40	36
	알 다	31	26	

男, 女 모두 自信感을 갖는 學生수가 남자의 경우 1966~69보다는 70~72년도가 35%에서 43%로 8% 많아졌으나 1973년도 실험대학입학자부터 다시 42%로 적어지고 있다.

4. 綜合 : 自我概念檢査와 一般性格檢査와의 比較 解釋

身體的自我를 제외하고 支配性, 社會性, 道德性과 責任性 등을 相互 比較하여 類型을 찾아 보기로 한다.

(1) 支配性이 높은 학생은 大體의으로 家庭的 背景에 따라 形成된 要因으로 볼 수 있으며 保守의이고 傳統的 秩序概念이 確立된 家庭을 背景으로 한 학생은 自己主張이 강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男學生을 面接해 본 결과 더욱 그렇다. 反對로 傳統的 家庭背景을 가진 女學生은 아주 낮은 점수를 얻게 된다. 民族의 制約性에 강조점을 두는 Jung의 理論에 비추어 볼 때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 家族關係가 크게 영향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家族關係가 圓滿하지 못한 것이 성격形成에는 크게 문제됨을 알 수 있다.

(2) 責任性에 대하여는 道德的 自我와 關聯지을 수 있을 것이다. 每年마다 責任性이 높은 학생수가 늘어가는 것보다 낮은 학생수가 늘어난 점으로 보나 道德的 自我점수가 높은 학생 即 道德的水準이 높은 학생수가 늘어가는 것보다 낮은 학생수가 늘어가는 것으로 보아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 現世의 實利的 利己的인 類型이 증가해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3) 社會性에 있어서는 社會的 自我와 比較할 때 對人關係에서나 社會的成熟度로 보나 社會的 關心도가 높아져 가는 것은 낮은 점수의 학생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IV. 結 論

Personality의 定義는 學者들의 見解와 立場에 따라서 여러 側面에서 내리고 있다. 앞 部分에서는 本人의 先行研究에서 주로 다루었던 心理—社會的 側面의 理論들을 간단히 要約하고, 本研究에서는 주로 첫째, 여러 學者들의 見解들을 比較하여 올포트(Allport)가 分類하고 綜合한 見解를 說明하였다. 둘째, personality 理論의 根源을 歷史的으로 考察해 봄으로 心理學研究와의 關聯性을 밝히고 그 特異性을 찾아 보았다. 그 特異性을 들면 臨床觀察의 전통에서는 Freud, Jung, McDougall들의 견해가 personality 理論 形成에 결정적 영향이 되었다고 하였다.

Freud의 生物物理學的 理論은 여러 學者들에 의해서 理論이 더욱 發展되고 說明이 되었으나, Jung의 立場은 類型論을 代表하는 學者中的 特異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本 研究에서 그 要點을 연구해 본 것이다.

類型論은 독일을 中心으로 한 性格學 특히 臨床心理學을 背景으로 해서 출발된 理論이며 人間行動을 無限한 個體의 行動이라는 一回的·個別的 行動의 無政府狀態에서 普遍的·宇宙的 行動 사이에 펼쳐지는 連續體로 본다면, 이러한 一回的인 것에서 普遍的인 것으로 가는 中間節로서 類型이라는 것이 存在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類型論에서는 人間行動의 恒常性을 假定

하여 이 기초 위에서 人間性格을 全體性・統一性・具體性에서 파악하려고 한다.³⁰⁾

Freud와 McDougall은 人間行動을 理解하는 열쇠는 動機에 있다고 강조하고, 動機와 機能에 關心을 기울이게 될 때 全人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만이 모든 行動의 理解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Personality 특징으로서 personality理論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理論展開보다는 特定한 또는 限定된 범위의 행동들에 대한 共通의인 法則이나 原則을 發見하여 體系化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personality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行爲의 배후에 깔려 있는 두 가지 강조점 即 “行動은 法則이 있다”는 것과, “個人差를 發見하는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個人差研究보다는 類型을 찾아 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綜合的 接近을 시도해 보았다.

歷史的 考察에서 personality 理論의 근거를 綜合해 보면 실험심리학적 背景과 相關心理學的 背景의 강조점을 갖고 있으면서 後者에 힘 입은 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ersonality연구에 있어서는 다섯가지 次元 即 Personality측정, Personality發達, Personality構成, Personality力動性 및 Personality變容들이 있다.

Jung의 理論은 “個人的 行動은 個性과 民族史에서 制約될뿐 아니라 個人的 目的과 抱負에 의해서도 制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民族과 Personality의 系統發生的 기초 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Jung이 人間의 目的論的 立場을 취한 것은 Freud를 비롯하여 다른 理論家들의 立場과 다른 것이다. 연구의 接近方法으로서 多角的인 시도를 하고 장기적인 努力을 單一目的에 기울여서, 感性的 要素를 지닌 普遍的 思考型態를 無意識性 속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 無意識性을 左右하는 自我概念의 心理的 發見이야말로 그의 集中的 研究의 最高絶頂이라고 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具體的 測定道具로서 自我概念檢査와 一般性格檢査를 통하여 無意識 속에 깔려있는 感性的要素를 지닌 思考型態 속에서 行動類型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아주 初步的인 시도였음을 自認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많은 內容들이 있다고 본다.

Personality測定을 檢査紙의 信賴도와 妥當度 測定에서부터 시작하여 成績과 결부시켜 보는 일이나, 다른 心理檢査와의 關聯性을 연구해 보는 일들은 人格教育을 위한 종합적 시도의 초보적 과정이며, 本大學의 特殊性인 基督教 高等教育과 實驗大學으로서의 特殊性을 찾아 보려는데 意義를 두었다. 基督教大學에서는 倫理・道德의 自我 形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찾아 보려고 標本集團을 선정하였다.

보다 높은 점수의 학생비율이 卒業學年에 이르러 더욱 증가된 점으로 보아, 기독교교육의 강조점의 하나로 道德의 自我 形成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入學時의 全體集團 檢査의 결과가 每年마다 기준이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역할

30)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 教育出版社, 1967, p.401~411. 黃禎奎氏에게서 類型論은 Archetype을 말한듯.

을 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듯하여 더 연구할 課題이기도 하다.

實驗大學의 특징으로서 實施 初年度인 73학년도에는 本大學에 대한 社會的期待와 大學의 努力의 結果로 남학생은 各要因마다 높은 학생의 비율이 많았으나 점점 감소되는 한편, 女學生은 73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知的側面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할 課題이지만 personality 側面에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個人的, 家庭的, 社會的 問題에 얽혀 있으므로 新入生 指導에 더 한층 계획적이고 연구적인 接近이 必要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진다.

參考文獻 및 資料

- 김기석, 一般性格檢査要綱, 서울: Korean Testing Center, 1965.
- 김재은, 人格의 測定 및 診斷, 서울: 教育出版社, 1964.
- 尹泰林, 韓國人の 性格, 서울: 現代教育 叢書出版社, 1964.
- 張眞鎬, 教育과 社會, 서울: 耕智社, 1968.
- 趙義淑, “心理—社會環境이 性格形成과 變容에 미치는 영향”, 崇實大學 論文集(第2輯), 서울: 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0.
- 鄭範謨 外, 教育研究,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2.
- 정원식, 自我概念檢査要綱, 서울: K. T. C., 1968.
-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 教育出版社, 1967.
- 調査資料: 崇田大學校 標本集團의 學業成績
- Brookover, Wilber B., A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55.
- Broom, Leonard, and Philip Selznick,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1963.
- Byrne, D.,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Theori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6.
- Chinoy, Ely, Sociology, New York: Random House, 1962.
- Hall, C. S., and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 Mehrabian, A., An Analysis of Personality Theori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8.
- Pervin, L. A., Personality, (Theor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 Smith, H. C.,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Hall Book Company, 1974.
- Zigler, E. F.; and I. L. Child, (ed.),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3.

A Study on the Types of Personality Trait and its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

Cho, Eui-sook

Summary

This study is a continuous research which is related to my previous study, "Psycho-social Effects of Environment on Personality Change" in 1970, and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and their problems during the academic year of 1972-75.

Considering a major function of education to be the personality formation,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 the definition of personality theories with a comparative approach. Allport, having an exhaustive survey of the literature extracted from almost fifty different definitions, classified into a number of broad categories. As an illustration, a few of these definitions are noted in this study as below:

- 1) Biosocial definition
- 2) Biophysical definition
- 3) Omnibus definition
- 4) Integrative or organizational definition
- 5) Interactional definition
- 6) Trait definition

Personality is defined by the particular empirical concepts employed by the observer. A comparative view of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eory must surely begin with conception of man advanced by the influential scholars. Some relatively recent sources of influence upon personality theories are introduced such as: (1) a tradition of Clinical Observation, (2) Gestalt tradition, (3) impact of Experimental Psychology in general and Learning Theory in particular, and (4) Psychometric traditi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ersonality psychology is in the centuries-old way of describing other individuals in terms of dimensions. This description of individuals led to attempts to measure these personality demension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them. Perhap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field of personality at the present time is the tendency to combine the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appro-

aches. An individual's personality is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all the relatively enduring dimens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cluding personality measurement, development,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Carl G. Jung is acknowledged to be one of the foremost psychological thinkers of the 20th century. For sixty years, he devoted himself with great energy and with a singularity of purpose to analyzing the far-flung and deep-lying processes of human personality.

Jung's theory of personality is usually identified as a psychoanalytic theory because of his emphasis upon unconscious processes. It differs in some notable respects from Freud's theory of personality. Perhaps the most prominent and distinctive feature of Jung's view of man is that it combine teleology with causality. Man's behavior is conditioned not only by his individual and racial history (causality) but also by his aims and aspirations (teleology). This insistence upon the role of destiny or purpose in human development sets Jung clearly apart from Freud.

Jung's theory is also distinguished from all other approaches to personality by the strong emphasis that it places upon the racial and phylogenetic foundations of personality. The foundations of personality are archaic, primitive, innate, unconscious, and probably universal. The self is the mid-point of personality, around which all of the other systems are constellated.

The concept of the self is probably Jung's most important psychological discovery and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his intensive studies of archetypes. The center of his integrated personality is the self.

The total population of students selected for this study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the kinds of instrument (test form) used. The instruments and numbers of students are as follows:

- 1) Self-Conception Test by Chung Won-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selling Center (1968). . . . 1,457 students
- 2) General Trait of Personality by Kim Kee-Suck, Korea University (1965). . . . 1,664 students.

This research includes actually three subjects: first, sampling group was selected in order to find out a comparative reliability in the Self-Conception Test in 1972 and 75. Second is finding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tests used and achievement grades, third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lf-Conception Test and General Trait Test of Personality.

In the following, an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tests is summarized.

- 1) Comparative reliability within the sampling group

In the following, 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of self-Conception Test in 1972 and 75 are reasonably high:

Moral conception50
Personality conception43
Family conception44
Sociability conception44
Total positive conception52

2) Comparison of changes of variables of Self-Conception Test within the sampling group:

Moral conception Score:

40% of students in 1972 were high, but 58 % of students in 1975 were high

Personality conception score:

53 % of students were high in 72, but 55 % were high in 1975.

Family Conception Score:

38% of students were high in 72, but 48% were high in 1975.

Sociability conception score:

44% in 1972 were high, but 52% in 1975 were high.

3)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Self-conception and grades are very low:

T.P. in 1972 with grades in 1972 were07

T.P. in 75 with grades in 1975 were12

S.C. in 1972 with grades in 1972 were12

S.C. in 1972 with grades in 1975 were008

4) Comparison of the traits of personality

Near an half of the students were mature enough for social interaction and in decision making. The scores of Ascendancy (47%) and Sociability (46%) of freshman students were in 1970~1972, but in 1973~75 the scores were decreased: Ascendancy were 46% and sociability were 43%.

5) Emotional stability of the most students in sampling group were also stable. But in the case of freshmen were getting lower in every year.

6) According to the scores of Self-Conception Test in family relation of the freshman group, there were much considerable family problems involved. However, in the sampling group, situation was reasonably improved 48% high in 1975 and 38% in 1972.